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❷ 연기와 무상



▶한줄요약
일본 선림사에 소장된 고려불화 〈아미타여래도〉의 옷 문양에는 법신과 보신이 확인된다. 그 자체가 부처님이다.

여래 衣서 법신·보신 확인…자체가 '부처님'

'흐르는 나를 보라' 설한 부처님
나로부터 분리돼야 진정한 자유
흐름을 보는 것이 곧 法 보는 것
'緣生' 반복 문양서 부처를 본다



도판① 일본 선림사 소장된 〈아미타여래도〉에서 아미타여래의 옷 문양.



도판② 둥근 원상(법신)에서 장엄한 에너지(보신)이 나오고 있는 장면.

한번 발을 담근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헤라클레이토스

판타레이와 제행무상

"판타레이(Πάντα ῥεῖ)!", "모든 것이 흐르고 있다(All things are flowing)"라는 뜻의 그리스어. 강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자로 번역하면 '만물유전(萬物流轉)'이다.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B.C.535~B.C.475)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계속 흐를 뿐이다"라는 만물유전의 철학으로 유명하다.

유사한 시기에 생존했던 석가모니 붓다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제행무상(諸行無常)!"

"제행"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무상"은 항상 상(常)자와 없을 무(無)자를 써서, '항상인 것은 없다.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은 변화한다, 더 정확히는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Law of Change)'라는 의미이다. '변화'라는 것 자체가 '진리'라는 것이다. 끝없는 동영상의 흐름이지, 스틸 컷(Still cut, 멈춘 한 장짜리 사진)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는 노릇이겠다. 그런데 불교적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강물만 아까 그 강물이 아니라) "담갔던 발도 아까 그 발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한다. '강물만 흐르는 게 아니고, 나도 흐른다'이다. 그리고 '흐르는 나를 보라'고 붓다는 말씀하신다. 흐르는 나를 보면, 나라는 고통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흐르는 나를 보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끊임없이 흐르는 나'를 봐라!

'내가 안팎으로 쉬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보는 방법이 위빠사나 수행법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그 안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무아無我)을 알게 된다. 무상·고·무아는 한 세트로 함께 가는 근본 진리이다. 이를 삼법인(三法印)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상은 어째서 고(또는 고통)인가? 우리의 마음(무명, 자각의 빛이 없는 상태)은 항상 (무엇이) 있다고 착각한다. 내가 있다고, 네가 있다고, 우리가 있다고, 세상이 있다고 매양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 하는 일이다. 그래야 무명이 스스로인 무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유지하려는 만물의 속성을 불교에서는 '자성(自性)' 또는 '자재(自在)'라고 한다. 그리고 "무명 업장 벗으라"고 말한다. 참으로 오래고도 질긴 '있다는 착각의 도돌이', 다시 말해 '세세생생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붓다는 말씀하셨다. 있다는 착각! 우리에게 장착된 인식 체계(6근·6경·6식의 작용)는 이러한 착각을 스스로 즐겨 동반하기에, 이것이 깨지면 고통이 온다.

거칠게 파도치는 '오온(五蘊)'은 자나 깨나 또 살건 죽었건 우리를 흔들고 있다. 무상한 '오온'의 생멸로, 우리는 무상한 '고통'의 연속에 놓여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쉴 수가 없다. 인생이 참으로 피곤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다. 오온과 고통이 우리를 24시간 365일, 그것도 세세생생 달달 볶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놓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온이란, 무명이 만들어지는 구조이자 요소이다. '다섯 가지 덩어리'란 뜻으로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을 말하는데, 색은 물질, 수는 느낌, 상은 파악과 표상, 행은 의지 작용, 식은 인식 작용을 말한다. 하나의 무명이 생멸하는 과정, 그 일련의 인과관계를 통찰한 것이 12연기이다. ①무명(無明) → ②행(行) → ③식(識) → ④명색(名色) → ⑤육처(六處) → ⑥촉(觸) ⑦수(受) → ⑧애(愛) → ⑨취(取) → ⑩유(有) →⑪생(生) → ⑫노사(老死)의 과정인데, 이것은 '내가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는 과정'을 펼쳐놓은 것이다.

'나'로부터의 '분리'

진정한 휴식과 진정한 자유는 이것으로부터의 '분리' 뿐이다. 오온의 흐름에서 분리되어 초탈할 수 있는 방법은, 붓다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통찰지를 키워 그것의 실체를 보는 것뿐이겠다. 무명의 줄기찬 흐름이 불가항력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는 마음인 각성(覺性)이 있다. 이 각성을 불성(佛性)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렇게 '흐름(또는 변화)'을 보는 것이 '법(法)'을 보는 것이고, 붓다가 말씀하신 우리의 수행 목표다. 요소들의 이합집산과 그것의 생멸의 흐름을 보아, 현재에서 무상·고·무아를 통찰해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니밋따 또는 일경성(합일의식) 등 사마타 수행 중 나타나는 특정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붓다가 말씀하신 궁극의 수행 목표는 아니다. 그 이유는 사마타 수행으로는 업장을 멈출 수는 있으나, 업장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업장이란, 무명의 반응으로 쌓아온 오염된 마음 덩어리이자 오염된 반응 체계이다.

하지만, 사마타는(궁극의 수행 목표는 아니나) 위빠사나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그래서 붓다는 사마타〔지(止) 또는 정(定)〕와 위빠사나〔관(觀) 또는 혜(慧)〕를 함께 닦는 방법을 계발하셨다. 이것이 불교의 요체이다. 사마타 수행은 여타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관의 대상인 신(神)에 집중하는 것. 불교를 불교이게 하는 핵심은 위빠사나에 있다고 하겠다. 정혜쌍수 또는 지관겸수를 통해 계발된 마음을 '반야(또는 반야지혜)'라고 한다. 이는 자칫 덩어리로, 자칫 있다고 보이는 대상을 꿰뚫어 그것의 실체(무상·고·무아)를 보는 각성의 힘을 말한다.

어떻게 지관문(止觀門)을 수행할 것인가? 지(止)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계상을 멈추는 것을 말하니, 사마타(奢摩他)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다. 관(觀)이라는 것은 인연의 생멸 상을 분별함을 말하니, 위빠사나(毘鉢舍那)의 뜻에 따르기 때문이다.
–〈대승기신론〉의 지관문 중에서

지관겸수의 수행을 통해, 계발된 반야지혜로 세상을 통찰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해 일어나는 일대연기(一大緣起)로 보인다. 변화무쌍한 생멸의 연속적 흐름만 있는데,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법계연기 또는 무진연기라고도 한다. 이 같은 진리의 풍경을 (중생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 또는 조형화한 것이 불교미술의 세계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옷 문양(고려시대 〈아미타여래도〉의 부분, 일본 선림사 소장) 하나를 예로 들어 보자.(도판①)

둥근 문양, 그 자체로 부처님

자색 바탕의 옷 위에 금니선(金泥線)으로 영롱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 곡선으로 휘돌아 나가는 줄기 모양의 서기(瑞氣, 신성한 기운 또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다. 멈추어진 정물(靜物)이 아니라, 부단히 생성되고 있는 서기의 향연이다. 서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둥근 원으로 표현된 법신의 바탕에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과 저것이 만나 연기(緣起)하여 연생(緣生)하고 있다. 그리고 연멸(緣滅)하는가 했더니 다시 연생(緣生)을 반복한다. 문양은 일순간도 멈추지 않고 파도치고 있다. 무상, 변화하는 여정 중의 진리를 그림으로 여실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서기의 줄기는 빙빙 돌며 원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어느 순간 그 안에서는 우주의 꽃과 잎사귀가 피어난다. 세부 문양들은 각기 따로가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법계연기의 풍경을 대승경전(〈화엄경〉〈법화경〉〈아미타경〉 등)에서는 다채로운 표현을 빌려 비유적으로 기술한다. 예를 들면, 〈아미타경〉에는 서기의 분파를 보배나무 기둥과 그것의 무수한 가지로 표현된다. 물론 나무의 크기와 가지의 숫자는 수 천 억 유순과 나유타 등으로 상상을 초월한 단위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무궁무진한 잎사귀·꽃송이·열매들의 규모와 형상 역시 불가사의하여,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경전에는 너무나 다채로운 형용사의 표현들이 나오지만, 이러한 방대한 기술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 '여의주와 빛(광명)'이다.

깨달음의 '본체(體)'는 여의주, 둥근 원상으로 표현된다.(도판②) 원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用)'은 빛으로 표현된다. 본체는 법신이고, 작용은 보신이다. 빛의 작용과 그 표현은 불교미술에서 매우 다채롭게 구현되지만, 패턴이 약 2가지가 있다. 분출하는 형식과 소용돌이치는 형식이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형식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는 아미타불의 옷 문양 단위 하나에서 '법신과 보신'을 볼 수 있다. 이 문양 자체로 '부처님'인 것이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1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